

극한더위+장맛비...지금부터 '덱스 싸움'

6월 역대급 더위에 선수들 체력 비상 집중호우 늘면 더블헤더 경기 불가피 부상자 관리 필수·백업층 강해야 유리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6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장마전선까지 신호탄을 날릴 태세다. 현장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전체 일정 4분의 1을 넘긴 KBO리그에서 본격적으로 '덱스 싸움'이 시작된다.

2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5.4도까지 치솟았다. 6월을 기준으로 따지면 1958년 이후 6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급 무더위'가 6월부터 찾아온 것이다.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올해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사상 최고 기온 경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금 수준의 더위에 고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이다.

더운 날씨에 경기 일정까지 불규칙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4일 오전부터 중·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오전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 24일 5경기의 개최 여부가 모조리 불투명하다. 만일 24일 경기가 우천 지연될 경우 25일 일제히 더블헤더가 치러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지각 개막한 KBO리그는 올해 '역대급 변수'로 시즌을 치르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올해도 여김없이 KBO리그를 습격할 태세다. 불규칙한 경기 일정 속에 10개 구단의 덱스 싸움도 본격화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참실구장 3루 덕아웃 위에서 선수단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아이스시스템 쿨러가 가동되고 있다.

고 있다.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은 잠잠하다. 지금까지 더블헤더를 가장 많이 치른 팀은 LG 트윈스로 2차례이며, 월요일 경기를 소화한 팀은 없다. 개막 첫 2개월간은 우천순연이 적었다는 의미인데, 본격적으로 일정의 변수가 리그를 휘감을 분위기다.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면 부상자 속출도 불가피하다. 가뜰이나 지각 개막으로 인해 리그 전반에 관리형 부상자가 넘쳐

나는데, 스타의 이탈이 더 많아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가득하다. 특히 더블헤더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다. 1경기를 마친 뒤 30분간 쉬 채로 2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이다. 두 경기에 모두 나서는 선수들의 경우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다. 수도권 A팀 트레이닝파트 관계자는 "이 경우 근 손실이 불가피하다. 근육이 손실된 상태로 뛰다보면 햄스트링 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팀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백업층이 강한 팀의 우세가 점쳐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감독과 코치들은 개막 전부터 백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코로나19로 개막이 거듭 미뤄지며 2군급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이들을 전력으로 활용할 참이다. 겉으로 보이는 1군 자원들만 강한 팀은 버티기 힘든 계절이 왔다. 이세 물밀의 발길질이 승부를 가른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오재원 화장실 해프닝'에 의연한 류 감독 "별일 아냐...다음엔 먼저 양해 구하면 돼"



LG 류종일 감독

21일 잠실 라이벌 두산 베어스-LG 트윈스전에선 두산 오재원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화장실 해프닝을 일으켰다. 두산이 2-0으로 앞선 5회초 이유찬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야 할 오재원이 화장실에서 급한 일을 보느라 약 3분간 경기가 중단됐던 그 사건이다.

당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상대팀 대타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자 LG 벤치는 웅성거렸다. 3분이면 마운드에 있는 투수의 어깨에 맺힌 땀이 식기에 충분한 시간이라서 부상 우려도 있었다. 몇몇 매체에선 이를 두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팀 내부의 의사소통조차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류종일 LG 감독은 의연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다. 류 감독은 "두산 김태형 감독이 경기 뒤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미 지난 얘기인데다 큰 결례도 아닌데 주변에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오재원도 경기 후 양 팀 선수들이 인사할 때 LG 김현수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류 감독은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 일도 아닌데 내가 나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었다. 과정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정리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감독이 먼저 주심에게 가서 상황을 알려주고 상대팀에 양해를 먼저 구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다. 두산이 왜 그러지 않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다.

류 감독은 그 해프닝이 문제가 아니라 라이벌 두산에 3연패를 당한 사실을 더 아프게 받아들였다. "자꾸 지나가 팬에게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재원은 오래도록 회자될 해프닝을 하나 남긴 채 23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유는 화장실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허벅지 통증이다.

잠실 |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집단 마무리 체제' LG·SK, 과부하 걱정되네

LG, 고우석 부재에 정우영 혹사 논란 하재훈 2군행 SK도 불펜진 체력 부담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동하는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체력 소모가 유독 심한 여름철을 맞아 불펜 과부하가 걱정이다.

가장 확실했던 뒷문이 허물어졌다. 2019년 세이브 1·2위는 23일을 기준으로 모두 1군 무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세이브왕(36개)에 오른 SK 하재훈은 올 시

즌 리그 최다 불펜세이브(6개)를 범하며 22일 2군행 통보를 받았다. LG의 마무리 공백은 더 깊었다. 고우석이 5월 18일 무릎 수술을 받고 이탈한 뒤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클로저의 부재는 차곡차곡 불펜의 부담으로 쌓인다. 벌써 2주 가량 집단마무리 체제로 마운드를 운용한 LG는 고졸 2년 차 정우영의 '혹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22.1이닝(18경기)으로 리그 전체 구원투수들 중 3번째로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이를 두고 류종일 감독은 "3연투는 없

다"고 단언하지만 데뷔 시즌에도 어깨 통증을 느꼈던 정우영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LG로선 충분한 필승조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정우영과 함께 왼손 불펜 카드인 진해수(20경기·13이닝)도 부쩍 등판 횟수가 늘어난 까닭이다. 10일 긴급히 1군에 투입된 베테랑 송은범과 최근 3연속경기 무자책점 투구를 펼치며 안정세를 되찾은 김태형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

9위 SK는 구원진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1점차 경기(11회)를 치르면서도 2승9패로 승패의 마진이 마이너스라 피로감은 더 크다. 필승조를 이루는 박민호(20.2이닝·7위), 김정

빈, 서진용(이상 20.1이닝·공동 8위)은 모두 개인 20경기를 넘겼다. 구원 최다인닝 10위권 내에 3명의 투수가 포함된 것은 SK가 유일하다.

SK는 지난 2년간 클로저 부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2018시즌에는 '홀런공장'으로 대표되는 타선의 힘으로 험거운 뒷문의 약점을 극복했고, 2019시즌에는 김태훈의 실패를 해외파 신인 하재훈의 발걸음으로 되짚었다. 하지만 올 시즌 SK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팀 타율은 0.236(9위)으로 떨어졌고, 필승조와 추격조의 기량차도 크다. 본격 무더위를 앞두고 SK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2020년 빅히트! 업소용 이동식 에어컨



센추리를 구매해야 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2.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3.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만든회사인지??
4.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가정용 아님>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